

## 梅山 洪直弼의 시문학 一考

李 東 宰\*

### <目 次>

- |                 |                   |
|-----------------|-------------------|
| I. 序言           | IV.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 |
| II. 關邪衛道の 의지    | V. 結語             |
| III. 尊明排淸義理의 추구 |                   |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의 산림처사로 추앙받았던 梅山 洪直弼이 젊은 시절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첫째, 關邪衛道の 의지, 둘째, 尊明排淸義理의 추구, 셋째,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서 홍직필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일조하였다.

첫째, ‘關邪衛道の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직필은 조선이 末世가 된 것은 斯道가 洛論과 湖論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신들의 의론이 옳다고 다투는 사이 천주교와 같은 異端이 闖入한 것이 원인이라고 여겼다. 그는 사도의 부흥은 분열된 학파의 통합과 함께 선현들을 褒揚하고, 제자들을 독려하여 사도에 귀감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하였다.

둘째, ‘尊明背淸義理의 추구’를 드러내고 있다. 홍직필이 살았던 18세기 전반은 일부 老論 집권층을 제외하고 백성들은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대한 의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leedj@kongju.ac.kr

식이 거의 퇴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문적 자부심과 학문적 배경으로 尊明義理가 남달라서 명나라가 망했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존명의리는 排淸意識으로 확대되어 청나라를 ‘개’라고 비하하는 등 적개심을 드러내고, 이를 물리쳐서 문명화된 중화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자임 하였다.

셋째,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다. 홍직필은 아버지의 강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을 한 이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 그는 39세에 世子洗馬로 8일간 出仕를 했다가 사퇴한 이후 여러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 그는 당대의 현실이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파행과 斯道가 점점 쇠퇴해지고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나날이 성행하는 현실을 말세라고 인식하고 守身安分을 위해 산림에 거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기르겠다는 自靖의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홍직필의 중후반기 이후에 주로 지어진 일상의 시들의 분석하고, 그의 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여 19세기 한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을 찾아보는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梅山, 洪直弼, 洛論, 關邪衛道, 尊明義理, 自靖

## I. 序言

梅山 洪直弼(1776~1852)은 조선 후기의 산림처사로 추앙받았던 낙론계 학자이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 7세 때 이미 문장을 지었으며, 17세에 성리학자인 朴胤源으로부터 ‘吾道有托’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학문이 뛰어났다. 그는 그의 나이 26세(1801, 순조 1)에 부모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했으나 會試에 실패한 뒤 과업을 포기하고 산림처사로 살면서 학문에 전념하며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그가 살았던 조선 후기는 대내외적으로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勢道政治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三政의 紊亂 등으로 인한

민생의 파탄은 급기야 민란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또한 天主教의 전래로 인해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이 점점 그 기반이 흔들리고 사회의 혼란이 심화되어 갔다.

그의 학문 연혁은 栗谷을 중주로 삼는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노론 낙론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는 평생 산림으로서 추앙을 받았지만 당시의 세도가인 안동김씨에 자문을 하여 다른 유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sup>1)</sup> 사후에 “용맹하게 正道를 지키고 엄중하게 邪道를 물리쳤고, 곤궁하게 살면서도 근심하지 않았고, 영달하였어도 교만하지 않았다. 문학은 심오하고 의리는 정미하여 한 시대의 儒宗이 되었다”<sup>2)</sup>라고 평가받았듯이, 그는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적 재질도 뛰어났다. 이는 그가 평생을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가르치는 여가에 3,555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sup>3)</sup>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학문의 의지, 사도수호의 의지, 尊明義理의 표백 등이 많이 드러난 시를 지었으며, 중후반기 이후에는 道友와의 교류, 가족 간의 정의, 산림처사로서의 삶의 만족, 늙음에 대한 한탄, 생활 주변의 소소한 사물 등 일상성을 드러낸 시를 주로 지었다.

현재까지 홍직필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의 철학사상에 관련된 연구<sup>4)</sup>와 문학에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산문에 관한 연구는 그가 영월 유람과정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서사화한 傳記와 記文을 節義的

- 1) 권오영, 「任憲晦와 그 學脈의 사상과 행동」, 『韓國學報』 제96집, 일지사, 1999, p.62 참조.
- 2) 『哲宗實錄』, 「철종 3년(1852년 7월 18일)」 조 기사. “勇於衛道 嚴於關邪 窮作陋巷之韋布 而不見其戚 達爲熙朝之賓師 而不見其泰. 文學之淵邃 義理之精微 蔚然爲一世之儒宗.”
- 3) 任憲晦, 『鼓山續集』 권1, 「三一編跋(壬戌)」, “梅山老先生詩凡三千五百五十五首.”
- 4) 안영상, 「매산 홍직필의 인물성동론과 명덕설」, 『인물성론』, 한길사, 1994;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제42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정길연, 「매산 홍직필의 禮說 연구」, 경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sup>5)</sup>와 傳記 자료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sup>6)</sup>가 있다. 또한 시문학에 관한 연구는 조선후기 도학자 시에 나타난 일상성의 몇 국면을 고찰하는데 그의 시 몇 수가 분석되었고,<sup>7)</sup> 신영주에 의해 그가 지은 시 가운데 儒道 존숭과 經世에 관련된 시를 그의 이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sup>8)</sup>가 있을 뿐, 그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가 남긴 시와 명성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基肥로 삼아서, 실록의 평가처럼 그가 젊은 시절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첫째, 關邪衛道の 의지, 둘째, 尊明排淸義理의 추구, 셋째,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서 홍직필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 II. 關邪衛道の 의지

홍직필이 살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의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방면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 즉 1811년 홍경래의 난, 1813년 梁濟海의 난, 1815년 李應吉의 난이 연달아 일어났고, 세도정치의 심화로 인한 정치의 파행으로 三政이 문란해졌으며, 여기에 더하여 수해가 연달아 일어나서 민생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중들의 심리에 부응하여 『정감록』과 같은 각종 秘記와 讖說이 유행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천주교가 전래되고, 이를 신봉

- 
- 5) 이대형, 「洪直弼의 영월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제8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 6) 이은주, 「필사본 梅山集의 傳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2015.
- 7) 정순희, 「조선후기 도학자의 시에 나타난 일상성의 몇 국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 8)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 존숭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이를 금기하는 박해가 연달아 일어나는 등 사회혼란이 극심하였다.

홍직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처한 것은 斯道가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이 붕괴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異端을 물리치고 사도를 수호하는 것만이 당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이를 자임하였다.

본 장에서는 홍직필이 천주교와 같은 異端을 배척하고 사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시를 살펴보는 데, 먼저 그의 현실인식을 살펴보고 이어 關邪衛道의 의지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낙론계 선배 학자인 任靖周(1727~1796)의 부음을 듣고서 병 때문에 문상을 못가는 심정을 드러낸 시이다.

吾道于今日益孤	우리의 儒道는 지금 날로 더욱 외로워지는데
如何夫子又長徂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또 영원히 돌아가셨나?
近翁同志稱知己	근옹은 뜻이 같아 知己라 칭찬하시고
聖主臨筵許大儒	성주께서는 경연에 임하여 대유로 인정하셨네.
古閣梅留床上易	오래된 집에는 매화가 있고 책상 위에는 周易이 있으며
虛堂蟲蝕壁間圖	빈 방에 벌레들은 벽에 걸린 그림 갇아 먹고 있네.
端陽承誨渾如夢	단양에 가르침 받은 일 꿈과 같으니
格物眞吾二字符	격물은 진정 나의 두 글자 符信이랴오 <sup>9)</sup>

시의 수련은 작자가 인식하고 있는 당대 斯道の 현실이다. 작자가 살았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은 조선의 건국이념이자 핵심 사상이었던 성리학이 쇠퇴하고 청으로부터 수입된 고증학과 같은 학술을 나날이 신봉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 등이 점차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작자는 ‘우리 儒道는 날로 외로

9) 洪直弼, 『梅山集』 권1, 「承雲湖任丈(靖周)之訃 病無由奔哭 詩以抒懷」.

위지고 있다'라고 탄식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를 斯道가 땅에 떨어진 말세라고 인식하고 있다.

함련과 경련은 임정주에 대한 칭송이다. 任靖周는 자는 穉恭이고, 호는 雲湖이며, 본관은 豐川이다. 임정주는 그의 형인 鹿門 任聖周와 함께 낙론계 학자로 主氣說을 주장한 학자이다. 임정주는 화자의 스승인 近齋 朴胤源(1734~1799)과 같은 동문으로 학문이 뛰어나서 정조에게 신임을 받았으며, 항상 학문에 몰두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다. 미련은 화자와 임정주와의 관계이다. 화자는 스승의 지기인 임정주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기고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홍직필이 당대의 현실이 사도가 땅에 떨어진 말세라는 인식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시는 최문일이 지어준 시에 차운하여 준 시이다.

門掩終南三十春	종남산에서 삼십 년 동안 문을 닫고는
嘯嘯惟願古之人	드높게 오직 옛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지.
黃唐世去雍熙遠	황당의 시대 지나니 옹희가 아득하고
洙泗文傳諷誦親	수사의 글 전하니 직접 외우노라.
誰識良工心獨苦	뛰어난 工人의 홀로 애쓰는 마음 누가 알라
空歎末路道非眞	말세의 도가 참이 아님을 부질없이 탄식하네.
高風近日偏懷想	고상한 풍모 요사이 유독 그리워하니
梅發晴窓玩易辰	주역을 볼 때 매화꽃 깨끗한 창가에 피었어라. <sup>10)</sup>

최문일은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으나 시의 내용으로 보아 작자와 동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시의 수련은 작가가 서울 남산 자락에 초옥을 마련하고 성인의 도를 배우기 위해 학문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함련은 작가가 인식하는 당대의 현실과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작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를 백성들이 서로 화락하고 교화가 밝게 펼쳐진

10) 洪直弼, 『梅山集』 권1, 「崔文一 南嶽 臨歸投詩 追步却寄」.

태평성대와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작자는 출사하기보다는 자연에 은거하며 공자처럼 강학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洙泗’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曲阜의 냇물인 泗水와 洙水로, 공자가 이곳에서 강학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신도 공자처럼 산림에 은거하며 講學을 한 것이다.

시의 경련은 작자가 살았던 당대의 학문적 분위기와 사도를 위해 노력하는 최문일에 대한 칭송이다. 작자는 사도가 점점 쇠퇴해지고 말세의 도인 천주교가 성행해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 말세로 돌아가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최문일이 사도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칭송한 것이다.

홍직필이 인식한 사도가 땅에 떨어진 말세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저버린 세상을 말한다. 즉 세상에 유행하는 습속이 전통적 가치인 성리학적 도덕관념과 다른 것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三綱五倫으로 대표되는 인륜을 저버리고 청나라로부터 들어온 풍속과 학문,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를 믿는 백성들이 점차 늘어가는 것에 대한 염려이다.

홍직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에 사도가 땅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청으로부터 유입된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習俗이 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극력 배척한다.

다음의 시는 ‘통천으로 가는 도중에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이다.

平生仰止魯連風	평소 魯仲連의 기풍 흠모하였는데
今日行臨東海東	오늘 동쪽 동해에 와 있다오.
欲挽餘波聊一洗	남은 파도로 한번 시원스레 씻어내고 싶어라
百年腥穢漲寰中	백 년 동안 천하에 가득한 누린내 나는 오랑캐 풍속. <sup>11)</sup>

작자는 전국 시대 齊나라의 高士로 뛰어난 재주를 지녔으나 얽매어

11) 洪直弼, 『梅山集』 권1, 「通川路中望海」.

사는 것을 싫어하여 벼슬하지 않고 趙나라에 은거하였던 魯仲連의 삶을 사모하여,<sup>12)</sup> 출사를 포기하고 自靖을 결심하였다. 작자는 그의 나이 26세에 금강산을 유람하러 갔을 때 금강산에서 동해를 바라다보며 이 시를 지었다.

시의 후반부는 작가의 염원이다. 작가는 한없이 넓고 푸른 동해의 물에 청나라로부터 유입되어 습속화된 오랑캐 풍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가 말하는 ‘누린내 나는 오랑캐 풍속’은 다름 아닌 巫覡信仰이다. 그는 그의 다른 시에서 “둥둥 새고 소리 저너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니, 남쪽 동쪽 이웃들 모두 토지신께 제사하네. 어이하면 서업령 같은 분을 나오게 하여, 여우 울음소리로 백성을 미혹시키는 것을 면하게 할까.”<sup>13)</sup>라고 하여, 怪力亂神을 섬기는 무격신앙을 극도로 미워했다.

홍직필이 怪力亂神을 섬기는 오랑캐의 습속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천주교의 유행에 대한 염려였다. 그는 천주교는 요괴나 도깨비와 같아서 남을 속이고 황당무계하며,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조상께 제사도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부의 의리와 부부의 분별도 없어서 음란하고 추한 행동을 하여 윤리 강상을 어지럽힌다고 여겼다. 또한 그는 이들이 서양의 오랑캐를 불러 들여오고 邪說로 대중을 현혹하는 凶逆徒라고

12) 『史記』 권83, 「列傳」, 「魯仲連鄒陽列傳」에 의하면, 노중련은 秦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여러 제후들이 진나라를 두려워하여 감히 조나라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魏나라의 辯士 新垣衍이 조나라에 와서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는 계책을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노중련이 “포악한 진나라가 방자하게 황제를 칭한다면 나는 차라리 동해에 빠져 죽겠다.”라고 하니, 여러 제후들이 이 말을 듣고 연합하여 진나라 군대를 패퇴시켰다. 齊나라 장군 田單이 齊王에게 천거하여 벼슬을 내리려 하자 노중련은 바닷가로 몸을 피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부귀하고서 남에게 굽히며 살기 보다는 차라리 빈천하면서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였다.

13) 洪直弼, 『梅山集』 권1, 「病枕聞賽鼓」, “寥寥賽鼓徹昏晨, 南舍東隣盡祀神. 安得起來西鄰令, 免教狐嘯惑愚民.”

인식하였다.<sup>14)</sup> 그는 천주교는 욕망을 긍정하여 제멋대로 윤리를 모독하므로 이적 가운데 가장 지독한 이적이며, 금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금수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천주교의 교리는 말도 되지 않으므로 자체를 논할 필요도 없고 모든 천주교 서적을 불사르고 신자들을 멸종시켜서 그 싹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sup>15)</sup>

홍직필은 스승인 박윤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어서 流俗에서 몸을 빼내 사도를 자임할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자신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sup>16)</sup> 그는 사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단이 횡행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풍속을 바로 잡고 기강을 세우며, 검소함을 숭상하고 부화함을 물리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여겼다.<sup>17)</sup>

그래서 그는 풍속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先賢들의 유상

- 14)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又痛斥異端流俗之害曰 耶蘇之術 真是鬼蜮狐魅 幽譎迷誕 不可方物 弗養弗享. 上無君父 下無夫婦 淫醜瀆亂 靡所紀極. 最是胡越同心 相聚成黨 爲越海招寇 開門納賊之圖 直是凶逆劇賊. 不可但以異端言 且上天尊嚴 而邪徒輒稱天而藉口 邪說惑衆 人入得以誅之. 況矯誣上天 罪不容誅 爲上天討亂賊 詎容虛忽乎.”
- 15) 洪直弼, 『梅山集』 권5, 「答老洲吳丈(戊寅九月八日)」, “今所謂邪學 以一慾字作爲法門宗旨 任情肆欲 麀聚瀆倫 卽是夷狄中夷狄 禽獸中禽獸 豈學云乎哉. 無所忌憚 至於斯極 而輒舉天以實之 矯誣上天 罪不容誅 祇宜剿殄滅之 無遺類已矣. 何足爲辨哉. 安之稱以天學 不亦有欠於尊畏上天耶.”
- 16) 洪直弼, 『梅山集』 권5, 「上近齋朴先生」, “崇禎紀元後三壬子九月二十日丙辰. 唐城洪直弼 … 謹行書贊之禮於先生座下. 小子稟賦愚庸 材力綿薄 恒居自量 以一身擬諸百爲 則雖運水搬柴至淺易者 猶患其齟齬而難任 況希聖希天之極功哉. 雖然秉彝之性 殄滅不得 一點明犀 耿耿在中 幸得奉教於君子之門. 朝夕薰陶 耳目濡染 則庶免墮面之譏. 或能自拔於流俗 而環顧一世 無以師道自任者 湖畿之間 有二三君子. 自守林樊 而親老道遠 不能作古人千里負笈之事 人生於三事一無所 常鬱鬱若不得志者. 然 亦不忍自安拋棄 役心詞華之末 誤身荆藝之場 孤負皇天降衷之意也.”
- 17)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至若流俗 只是極軟熟 極脂韋 無圭角 無廉恥. 苟係進取 不憚爲狗彘之行 不待流弊而已化爲夷狄禽獸. 所以三綱淪 九法斲 其害不下於異端. 聖人之惡鄉愿 非以是歟. 欲拯斯弊 惟在正風俗 立紀綱 崇名檢 黜浮華而已.”

과 위패가 모셔진 사당과 서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를 포양하는 것이 儒道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 잡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흥직필은 사도의 수호를 위해 먼저, 그는 전국 각지를 여행할 때마다 역대 우리나라 儒道의 사표가 되는 先賢들의 유허지를 찾아 이들을 褒揚하였다.

다음의 시는 작자가 아버지의 임지인 밀양에 觀親을 갔다가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위패를 모시고 봉향하는 경상도 밀양의 예림서원을 찾아 참배하며 지은 시이다.

圃隱初夫子	포은이 첫 번째 스승이셨는데
中間作者無	중간에 계승한 자가 없었다오.
先生開正路	선생이 올바른 길을 열어 놓으시어
後世作羣儒	후세에 학자들을 진작시키셨네.
名豈因文著	이름이 어찌 글을 통해 드러나겠는가.
功由與道俱	공은 道學과 함께 높다오.
彝尊遺蹟在	이준록이 남아 있으니
師友自江湖	사우는 江湖로부터 비롯되었네. <sup>18)</sup>

작자는 우리나라 사도의 도통이 포은 정몽주에서 출발하였지만 포은 사후에는 계승할 자가 없었으나 다행히 김종직이 아버지인 江湖 金叔滋(1389~1456)에게 배웠고, 김숙자는 治隱 吉再(1353~1419)에게 배웠으며, 길재는 圃隱 鄭夢周(1337~1392)에게 배웠으므로 도학의 정통을 김종직이 계승하였다고 포양하고 있다. 즉 김종직이 정몽주의 도통을 이어받아 이를 더욱 발전시켰고, 제자인 一蠹 鄭汝昌(1450~1504), 寒暄堂 金宏弼(1454~1504) 등을 진작시켜 유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칭송한 것이다.

다음의 시는 흥직필이 스승인 老洲 吳熙常(1763~1833)을 모시고 서울 도봉산 동쪽에 있는 도봉서원을 찾아 靜菴 趙光祖(1482~1519)와 尤庵

18) 洪直弼, 『梅山集』 권1, 「二十一日 偕翊汝拜禮林書院 佔畢齋主享之所也」 其二.

宋時烈(1607~1689)을 참배한 후 지은 시의 1, 2수이다.

此歲知何歲 이 해가 어느 해인지 아는가?  
 重回己卯冬 다시 기묘년 겨울이 되었네.  
 九關猶虎豹 구중 관문에는 범과 표범 으르렁거리고  
 大陸爛龜龍 큰 육지에는 거북과 용이 죽었다오.  
 世禍一時事 세상의 화는 한때의 일이요  
 儒林百代宗 유림은 백대의 宗師라오.  
 心香聊自薦 마음의 향불 애오라지 올리니  
 如得躡玄蹤 마치 현종을 밟는 듯하여라.

我生後大老 나의 태어남이 大老보다 뒤이니  
 神契在遺書 정신으로 사귀 남긴 책에 있다오.  
 名理傳元晦 명분과 이치는 원회를 전하고  
 事功承子輿 일과 공은 자여를 계승하였네.  
 斯文終不喪 사문이 끝내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  
 世道定焉如 세도는 정녕 어디로 갈꼬?  
 端坐懷高躅 바르게 앉아 높은 자취를 생각하니  
 清風振我裾 시원한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치네.<sup>19)</sup>

시의 첫 수는 정암 조광조를 褒揚한 시이다. 시의 수련은 작자가 스승인 오희상을 모시고 조광조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서거한 지 300년이 지난 기묘년에 도봉서원에 찾아 참배하는 장면이다. 시의 함련은 사림파가 대대적인 賜死와 유배를 당한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이다. 기실 己卯土禍는 1519년(중종14) 南袞, 沈貞, 洪景舟 등의 勳舊派가 당시 중종의 신임을 받아 과감하게 정치개혁을 추진하던 趙光祖 등의 士林派를 포함하여 대대적으로 賜死시키고 유배를 보냈던 사건이다.

시의 후반부는 사화가 지나간 후 조광조는 다시 복권되어 유림의 중

19) 洪直弼, 『梅山集』 권2, 「重陽之翌 隨澄岳吳丈于道峯 拜兩文正先生廟」 其一, 二.

장으로 영원히 그 업적이 계승되고, 推仰하는香火가 이어지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나아가 작자 자신도 조광조처럼 사도의 사표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함께 배향된 우암 송시열을 포양한 시이다. 시의 수련은 작자와 송시열과의 관계이다. 작자는 자신이 송시열보다 뒤에 태어나서 그의 정신을 그가 남긴 서책을 통해 계승한 사람이라고 언표하고 있다. 즉 자신이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의 학문 연혁은 栗谷 李珣를 종주로 삼고, 尤庵 宋時烈과 農巖 金昌協, 三淵 金昌翁을 독실하게 추종하였으며, 漢湖 金元行과 近齋 朴胤源, 老洲 吳熙常을 독실하게 신뢰하였다<sup>20)</sup>고 하였듯이 노론 낙론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함련은 송시열의 학맥의 연원과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작자는 송시열이 주자학의 정통을 계승하였고, 또 이단을 물리치기를 맹자처럼 하였다고 칭송하고 있다.

경련은 작자가 살고 있는 당대의 유학의 현실에 대한 염려이다. 작자는 “사문이 끝내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 세도는 정녕 어디로 갈꼬?”라고 사도의 현실을 한탄하며, 유학의 정통은 영원히 이어지길 기대하면서도 천주교와 같은 이단이 나날이 성행하는 현실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미련은 작자가 조광조와 송시열을 참배하면서 하는 다짐이다. 작자는 두 선현처럼 사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직필의 선현들에 대한 포양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시는 개성을 찾아가서 圃隱 鄭夢周(1337~1392)를 享祀하는 승양서원을 방문하여 지은 시이다.

高麗五百載 고려조 오백 년에

20) 金平默, 『重菴集』 권52, 「梅山洪先生遺事」, “嘗以栗谷 爲東方孔子 尤菴爲晦翁副貳 農巖則服其文理密察 三淵則服其襟懷洒落 近世則篤信漢湖·近齋·老洲諸公 而朋友則襟溪李公 爲生同志死同傳也.”

獨有鄭先生 오직 정 선생이 계시네.  
 氣盡山河壯 기운은 산하의 웅장함을 다하였고  
 名爭日月明 명성은 일월의 밝음과 다투었네.  
 忘身扶社稷 몸을 잊어 사직을 붙들었고  
 殉道答朱程 도를 위해 죽어 정자와 주자에 보답하셨네.  
 廟柏淸風動 사당의 측백나무에 시원한 바람 진동하니  
 脩脩萬古聲 쇠아쇠아 만고의 소리 들리네.<sup>21)</sup>

이 시는 개성의 숭양서원을 찾아 사도의 鼻祖로 추앙받는 포은 정몽주를 포양한 시이다. 시의 전반부에서 작자는 정몽주가 고려 500년의 역사 동안 유일하게 儒道를 개창하신 분으로 그 업적은 일월처럼 빛나다고 추앙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 작자는 정몽주가 고려 사직의 의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정주학을 개창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다. 나아가 만고불변의 의리정신과 함께 그가 이룩한 학문은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홍직필은 선현들의 유허지를 찾아 추승한 것뿐만 아니라 산림에 은거하며 후학들을 기르며 제자들에게 사도 수호를 독려한다.

다음의 시는 작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병덕이 더위와 비를 무릅쓰고 천릿길을 달려온 것에 대해 그가 돌아갈 때 전송하며 써 준시이다.

吾道存亡凜一絲 우리 도의 존망이 한 가닥 실처럼 위태로운데  
 任誰扶得大綱頽 누구에게 맡겨 무너진 기강을 붙들게 할까  
 賴有三溪高士在 다행히 삼계 고사가 있으니  
 百年終作大宗師 훗날 마침내 대종사가 되리라.<sup>22)</sup>

趙秉憲(1800~1870)이 충청도 내포[지금의 충남 보령시]에서 작자

21) 洪直弼, 『梅山集』 권2, 「嵩陽書院 二首」 其一.

22) 洪直弼, 『梅山集』 권3, 「趙孺文聞余病革 衝炎冒雨 千里命駕 於其歸 送之以詩」.

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천리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다. 작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유도가 나날이 쇠퇴해져가는 현실이 고민이었다. 다행이 조병덕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자신의 뒤를 잇겠다고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작자는 조병덕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사도수호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다.

작자의 다른 시에서도 조병덕에게 “바라건대 그대는 힘써 부지런히 절차탁마하여, 백세 뒤에 끝내 세상에 이름난 보배가 되라.”<sup>23)</sup>라고 하여 유학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나아가 그에게 “백 년의 우리 도 그대에게 의탁하였으니, 고상한 식견과 청렴한 지조 참으로 발군이러오.”<sup>24)</sup>라고 하여 조병덕에게 사도수호의 당부를 하고 있다.

작자의 이러한 關邪衛道の 의지는 다음 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화서학과의 2대 지도자로 추앙받는 重菴 金平默(1819~1891)에게 준 시이다.

靑袍客子自華山	청포 입은 나그네 화산에서 왔으니
妙歲高才學孔顏	젊은 나이에 높은 재주로 孔子와 顏子를 배웠네.
從古竿頭難進步	예로부터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내딛기 어려우니
願君努力一躋攀	바라건대 그대는 노력하여 한번 올라보게나. <sup>25)</sup>

김평묵은 華西 李恒老의 문인으로 梅山에게서도 수학한 인물이다. 김평묵은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동쪽에 있는 산인 華山 아래에 거처하던 李恒老에게 젊은 시절 먼저 수학하고 다시 홍직필을 찾아와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작자는 김평묵을 화산에서 찾아왔고, 젊은 시절부터 孔子와 顏子를 배웠다고 칭송하고 있다.

23) 洪直弼, 『梅山集』 권3, 「送趙孺文」, “願君努力勤磨琢, 百歲終成命世珍.”

24) 洪直弼, 『梅山集』 권3, 「夜枕懷趙孺文行李」, “百年吾道托夫君, 雅識清操迴出羣.”

25) 洪直弼, 『梅山集』 권3, 「贈別金稚章 平默」.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김평묵에게 하는 당부이다. 작자는 김평묵에게 학문이란 백척간두에서 한걸음을 대드는 것처럼 어려우니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홍직필이 제자들에게 衛道를 당부하는 것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시는 鼓山 任憲晦(1811~1876)에게 사도수호를 당부하고 있다.

尊門風節後繩先	존귀한 가문의 풍절은 후대가 선대를 이으니
賴子揄揚百世傳	그대에게 힘입어 드날려 백세에 전해지리.
自是明誠眞繼述	이로부터 명과 성 참으로 전승될 것이니
歸求名理紫陽編	돌아가 자양의 책에서 명리를 구하라. <sup>26)</sup>

이 시는 홍직필이 70세 되던 해에 제자인 任憲晦에게 사도를 당부하며 지은 시이다. 임헌회는 홍직필의 낙론 학맥을 계승한 산림처사로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학통을 艮齋 田愚에게 전수하였다.

시의 1~2구는 작자가 제자인 임헌회에게 하는 칭찬과 당부이다. 작자는 임헌회가 명문 집안출신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는 것을 칭찬하고, 더 학문에 매진하여 유림의 종장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의 3~4구는 작자가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공부의 방법과 次序를 깨우쳐주는 장면이다. 작자는 『중용』 제21장의 “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性이라 하고 明으로 말미암아 진실해지는 것을 教라 이르니, 진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진실해진다.”<sup>27)</sup>를 인용하여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주자의 책을 통해 공부할 것을 당부한다.

홍직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를 말세로 보고, 사도의 부흥만이 말

26) 洪直弼, 『梅山集』 권3, 「任明老竣先集之役 止宿江榭. 和呻作一絕 用贈其行乙巳」.

27) 『중용』,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명나라가 학술(儒學)이 분열되어 양명학과 같은 이단이 크게 발흥되었기 때문에 망하였다고 여겼으며,<sup>28)</sup> 조선이 말세가 된 것은 사도가 洛論과 湖論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신들의 의론이 옳다고 다투는 사이 이단이 闖入한 것이 원인이라고 여겼다.<sup>29)</sup> 그러므로 사도의 부흥은 분열된 학파의 통합과 함께 선현들을 포양하고, 제자들을 독려하여 사도에 귀감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며, 현실적 이익을 쫓는 鄉原을 물리치고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하였다.<sup>30)</sup>

### III. 尊明排淸義理의 추구

홍직필이 주로 살았던 18세기 전반은 명나라를 존송하는 분위기도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이 퇴색되어 있었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노론들의 정치 논리인 의리의 숭상 차원에서 존명의리가 존재하였을 뿐 일반 국민들의 분위기는 이와 거리가 멀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李德懋(1741~1793)와 낙론계 문인인 洪大容(1731~1783)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대용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신종의 구원이 없었으면 지금 조선의 백성들

28)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嘗謂世教汚隆 國祚修短 咸係於儒道之興替. 又謂明末 學術分裂 王守仁陳獻章之徒 立幟朱門 造恠捏妖 爲邪說之嚆矢 以致夷狄之禍. 嘗言于老洲曰 明統之亡 不亡於闖賊 不亡於黨禍 而亡於學術. 老洲稱其卓見. 又痛言流俗之害 甚於異端.”

29) 洪直弼, 『梅山集』 권5, 「上性潭宋公煥箕(丙辰)」, “犬羊之拜習熟 而人莫知恥 諛淫之論猖獗 而世不爲怪 駸駸然將入於夷狄禽獸之域矣. 至於聖凡心人物性之辨 湖洛之爭 是非如山 分而又分 裂之又裂 操戈按劍 幾成蠻觸 其不至於玄黃者 亦云幸矣.”

30)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曰聖人之惡鄉原 非以是歟 欲拯斯弊 惟在正風俗立紀綱 崇名檢黜浮華而已.”

은 즐겁게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자, 이덕무가 이르기를 “지금 세상에 (명나라를) 몇 사람이나 애통해하고 그리워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明字를 글줄의 최상단에 쓰자 어떤 경박아가 크게 비웃으며, “명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왜 존승합니까?”라고 하였다.<sup>31)</sup>

이처럼 홍직필이 주로 살았던 18세기 전반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도 벌써 200년이 더 지났으므로 일부 노론 집권층을 제외하고 백성들은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대한 의식이 거의 퇴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문적 자부심과 학문적 배경이 노론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명나라에 대한 존경의식이 남달랐다. 그가 낙론계 문인과 다르게 호론계 문인의 입장처럼 大明遺民으로 자처한 한 것은 그의 6세조인 洪汝龜가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자 산중에 들어가 평생 自靖하며 대명처사로 자처하였던 인물<sup>32)</sup>이었듯이 가문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성향이 비록 그가 낙론계 학자이지만 대명의 리를 강조하는 호론계 인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에서 기인한다.<sup>33)</sup> 그리하여 그는 다른 낙론계 학자와 다르게 의리 수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의 의리 수호 의지는 존명의리에서 출발한다. 그의 존명의식은 명나라가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난에 처하자 구원병을 파병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다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先賢인 宋時烈을 비롯한 서인들이

31)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天涯知己書」, 「筆談」, “湛軒曰 萬曆年 倭賊大入東國 神宗皇帝動天下之兵 費天下之財 七年然後定. 到今二百年 生民之樂利 皆神宗之賜也. 炯菴曰 今世哀慕者幾人矣. 余嘗與人書 書明字於極行 有一浮薄輩 大笑以爲明既亡矣 何必尊之.”

32) 洪直弼, 『梅山集』 권44, 「曾祖考縣令贈左贊成府君墓誌」, “曾祖諱汝龜 丙丁後沒身自靖 世稱大明處士.”

33)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狀」, “至十六 行昏禮. 立菴朴公俊欽 屏溪高第 而於先生外戚也. 自幼服習 間又受讀于金公履重. 先生每言吾一黃之初 開發於二公者爲多.”

再造之恩이라고 여겨 명나라가 망했어도 崇禎年號를 사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義理論을 계승한 것이다. 그의 존명의식은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쳐야할 대상으로 본 배척의리로 확대된다.

먼저, 尊明義理를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명나라 의종황제가 순국한 날에 비분강개한 심정을 읊어서 任魯와 荷 어른께 올린 시이다.

此日知何日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先皇殉社辰	선황제께서 사직에 殉國한 때라오.
有光洪武烈	홍무의 功烈에 빛남이 있고
無媿禮經文	예경의 글에 부끄러움이 없구나.
正氣凌千古	올바른 기운은 천고를 관통하고
仁心及八垓	인자한 마음은 팔방에 미쳤네.
吾王大報意	우리 임금님 크게 보답하시는 뜻은
壇上裸將親	대보단 위에서 직접 강신제 올리는 것이라오. <sup>34)</sup>

시의 수련은 작자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라고 먼저 設疑를 하고, 이어 “선황제께서 사직에 殉國한 때라오”라고 자답하여, 그 비분강개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기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毅宗은 1644년 3월 19일 농민 반란을 이끈 闖王 李自成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자 자신의 시체를 훼손할지언정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萬歲山에서 목매 자살하였다. 함련은 의종의 순국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의종은 명나라를 세운 태조에게 부끄럽지 않게 장렬히 순국하였으며, 이는 예경에도 부끄럽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 『예기』 「曲禮」에 “國君은 社稷을 위해서 죽고 大夫는 무리를 위하여 죽으며 士는 명령에 죽는다.”<sup>35)</sup>라고 하였듯이 의종이 사직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순국하였다고

34) 洪直弼, 『梅山集』 권1, 「三月十九日 卽毅宗皇帝殉社之辰也 不勝悲憤 情見于辭 奉示穎荷兩座下 三首」 其一.

35) 『禮記』, 「曲禮」, “國君死社稷 大夫死衆 士死制.”

칭송한 것이다.

경련은 작자가 의종의 순국은 천고의 역사를 통해 모범이 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련은 명나라가 비록 망해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이지만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파견하여 조선을 구원해준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援軍을 보낸 명나라 神宗과 장렬하게 순국한 毅宗의 恩義를 잊지 않기 위하여, 조선의 임금들은 昌德宮 후원에 설치한 大報壇에 나아가 손수 강신제를 올리며 그 은혜를 기려야 한다는 것이다.

작자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황제의 덕 하늘처럼 높아 초목들도 아니, 우리 동방에선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으랴. 높고 높은 대보단을 이에 쌓으니, 천추만세에 영원히 칭송이 있으리라.”<sup>36)</sup>라고 하여, 명나라 황제의 은혜를 영원히 칭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흥직필의 존명외리 의식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명나라 출신 邢玠와 楊鎬를 향사하는 사당인 선무사에서 지은 시이다.

萬事滄桑入浩歌	세상만사 상전벽해라 호기로운 노래 들려오고
邢楊廟下感懷多	邢玠와 楊鎬의 사당 아래 감회가 많구나.
吾東再造緣誰力	우리 동방 다시 中興된 것 누구의 힘이었던가?
忍見金縉渡鴨河	금과 비단 압록강 건너가는 것 차마 볼 수 없네. <sup>37)</sup>

宣武祠는 임진왜란 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운 명나라 兵部尙書 邢玠를 제향하기 위해 1598년(선조31)에 太平館 서쪽에 세운 사당이었는데, 1604년에 명나라 經理 楊鎬를 追配하였다. 『國朝寶鑑』에 의하면 “邢玠와 楊鎬는 1597년(선조30) 정유재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36) 洪直弼, 『梅山集』 권1, 「有感 三首」 其二, “帝德如天草木知, 吾東何日敢忘之. 巍巍大報壇斯築萬, 世千秋永有辭.”

37) 洪直弼, 『梅山集』 권1, 「宣武祠感懷 二首」 其一.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온 명나라의 신하들로 右僉都御史 양호를 經理로, 병부 상서 형계를 總督으로 삼고, 軍門 麻貴를 提督으로 삼아 宣大兵 1천을 통솔하게 하였다.”<sup>38)</sup>라고 하였다.

시의 1~3구는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조선이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준 은혜에 힘입어 다시 중흥한 것을 말한 것이다. 시의 결구는 명나라의 再造之恩으로 회복한 나라를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다시 압제 하에 놓이고, 청나라에 금과 비단을 朝貢하는 당대의 현실이다. 작자는 “금과 비단 압록강 건너가는 것 차마 볼 수 없네.”라고 한탄하며, 청나라의 불의한 노략질에 분개하고 있다. 이처럼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부당한 貢納은 자연스럽게 배척의식으로 드러난다.

다음은 배척의식이 드러난 시를 살펴본다.

이 시는 작자가 그의 나이 18세에 지은 시로 꿈속에서 지은 시를 이어 지은 시이다.

天長地久滌生愁	하늘과 땅 영원한데 아득히 근심이 생겨나니
百世難忘丙子讎	백세토록 병자년의 원수 잊기 어려워라.
巖坼蜂飛腥臭積	바위가 갈라지고 벌떼가 날아가자 비린내 쌓이고
霧開龜出異香收	안개 걷히고 거북이 나오자 기이한 향기 거두었네.
空餘萬古攀龍痛	공연히 용을 부여잡는 애통만 만고에 남아 있고
不盡千秋拜犬羞	개에게 절한 치욕 천추에 다 씻을 수 없구나.
十載磨來三尺劔	십 년 동안 삼척의 검을 갈아 놓으니
燕山一片不盈眸	한 쪽의 연산은 눈에 차지 않네. <sup>39)</sup>

시의 수련은 작자가 청나라의 침략인 병자호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38) 『國朝寶鑑』 권32, “丁酉, 三十年, 春正月, 皇朝以右僉都御使楊鎬爲經理, 兵部尙書邢玠爲總督, 軍門麻貴爲提督, 統宣大兵一千.”

39) 洪直弼, 『梅山集』 권1, 「二月二十九日夜 得一聯曰空餘萬古攀龍痛 不盡千秋拜犬羞 覺則遽然一場夢也 曾懷自覺不平 足成一律 癸丑」.

화친조약을 맺은 것은 우리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戰勢가 불리하자 산성아래 삼전도에서 降伏의식을 행하는 장면과 봉림대군(효종)이 인질로 심양에 끌려간 상황이다. 실제로 “1637년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청나라와 和議가 이루어진 뒤에 남한산성에 바위가 갈라지자 별떼가 날아갔고, 孝宗이 瀋陽에 계실 때에 향기로운 안개가 방에 가득하고 신령스런 거북이가 나타났다.”<sup>40)</sup>고 한다.

시의 경련은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효종에 대한 애통함과 오랑캐인 여진족에게 항복한 것에 대한 비분함이다. 여기에서 ‘龍’을 부여잡는 애통함은 군주를 잃은 슬픔을 말한다. 이는 北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한 효종을 슬퍼한 것이다. ‘拜犬羞’는 南漢山城으로 피난하였던 인조가 1637년 1월 성문을 열고 나와 산성 아래의 三田渡에서 청나라 太宗에게 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고 군신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 작자가 청나라는 女眞族이 건국한 後金이 바뀐 나라로 오랑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개’라고 비하하여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시의 미련은 당시 화친조약을 맺고 인질로 중국 심양으로 昭顯世子와 함께 끌려갔던 鳳林大君[孝宗]이 1637년부터 1645년까지 9년 동안 인질로 있으면서 복수심을 길렀던 일을 이른다. 그리고 燕山은 청나라의 수도인 燕京을 말한다. 여기에서 작자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비록 인질로 끌려가 9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한 청나라는 中華의 문화를 향유하지 못한 미개의 오랑캐가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

홍직필의 배청의식은 청나라를 몰아내고자 하는 의지로 심화된다.

다음의 시는 同門인 李載毅(1772~1839)가 보여준 「감회」시에 화운한 시이다.

40) 이 시의 夾註에 “丁丑和成後 南城巖坼蜂飛. 孝廟在瀋時 香霧滿室 神龜現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我有龍泉劍	나에게 용천검이 있는데
磨來意欲何	잘 갈아온 뜻 무엇 하려 함인가?
人間無淨地	인간 세상에 깨끗한 곳이 없으니
天下是誰家	이 천하는 누구의 집이던가?
舉目山河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하가 다르고
回頭歲月多	고개 돌려 헤아려보니 지난 세월 길구나.
非徒燕趙士	연나라 조나라의 선비뿐만이 아니라
慷慨發悲歌	강개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노라. <sup>41)</sup>

이재의는 작자와 함께 박윤원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지기였다. 시의 수련은 작자가 청나라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이다. 작자는 자신 소유의 용천검이 있는데 이를 가지고 청나라를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시의 함련은 작가의 중화 세상에 대한 인식이다. 中華란 문명화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sup>42)</sup> 작자는 중국이 문명화가 안된 오랑캐 나라인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도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깨끗한 곳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의 경련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지도 200여년이 지나갔고 이에 소중화의 문화도 오랑캐 문화에 접변이 되어 이제는 온 천지가 오랑캐 習俗으로 물들어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이다. 시의 미련은 오랑캐 문화로 바뀐 현실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작가의 慷慨이다. 작가는 전국시대 연나라와 조나라의 선비들처럼 습속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을 본받아서 오랑캐인 청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홍직필의 排淸 의지는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새벽녘 베갯머리에서 잠이 오지 않아 ‘왕의 군대가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는 날 가제를 지낼 적에 네 아버지께 고할 것을 잊지 말라’는 육검남의 시를 읊고 격앙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인하여 그

41) 洪直弼, 『梅山集』 권1, 「和李汝弘 載毅 所示感懷韻」.

42) 홍직필이 말하는 중화란 공자로 대표되는 儒道가 실천되는 세상을 말한다. 즉 삼강오륜이 실천되어 군신이 서로 화락한 사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를 본떠 지은 시의 둘째 수이다.

昏昏鶉醉苦難醒	몽롱하게 순수(鶉首)에서 취하여 깨기 어려우니
易位乾坤二百齡	건곤의 자리가 바뀐 지 이백 년이 되었네.
待到廓清華夏日	중화를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노니
子孫無忘告吾靈	자손들은 나의 영전에 고할 것을 잊지 말라. <sup>43)</sup>

홍직필이 중국 송나라 시인인 陸游가 임종 때 남긴 시인 <示兒>를 본 떠 마치 유언과 같이 지은 시이다. 시의 1~2구는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에 의해 망한지 200년이나 된 것을 말한다. 鶉首는 12星次 가운데 하나로 秦나라의 分野인데, 옥황상제가 술에 취해 진나라 穆公에게 이 지역을 떼어 주었다는 고사<sup>44)</sup>를 원용하여, 당시 오랑캐의 하나인 진나라로써 청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시의 3~4구는 작자가 자손에게 하는 당부이다. 작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청나라를 물리치고 중화세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없지만 후손들은 반드시 이 유업을 완성하여 자신의 영전에 고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작자가 이처럼 청나라를 오랑캐로 인식하고 이를 물리치고 중화세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는 그의 다른 시에서 보인다.<sup>45)</sup>

홍직필은 華夷의 분수는 하늘과 땅처럼 정해져 있고 귀천이 있어서 元人和 清人이 중국에 들어가 주인이 되었지만 정통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은 단지 사람과 짐승의 중간에 있을 뿐이라고 하여, 청나라를 극도로 미워하였다.<sup>46)</sup>

43) 洪直弼, 『梅山集』 권3, 「曉枕無寐 誦陸劔南詩王師北定中原日家祭無忘告乃翁 不勝激昂 仍效其體」.

44) 『文選』, 「西京賦(張衡)」, “昔者 大帝說秦繆公而覲之 饗以鈞天廣樂 帝有醉焉. 乃爲金策 錫用此土 而翦諸鶉首.”

45) 洪直弼, 『梅山集』 권1, 「有感」 其一, “吾從何地讀陽秋, 天下腥羶歲百周. 已矣河清吾不見, 夕陽矯首望神州.”

홍직필이 살았던 18세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200년이 더 지난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노론 집권층을 제외하고 백성들은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대한 의식이 거의 퇴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직필은 가문적 자부심과 학문적 배경으로 尊明의식이 남달랐다. 그의 존명의식은 서인들이 재조지은이라고 여겨 명나라가 망했어도 崇禎年號를 사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義理論을 계승한 것이다. 그의 존명의리는 排淸意識으로 확대되어 청나라를 ‘개’라고 비하하는 등 적개심을 드러냈고, 청나라를 물리쳐서 문명화된 중화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자임하였다.

#### IV.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

홍직필은 청년기 이후 세도정치를 직접 체험한다. 세도정치의 심화로 인한 정치의 파행은 三政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삼정의 문란이 민생의 파탄을 낳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세도정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명나라가 망한 원인은 외척과 환관의 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祖訓으로 母后와 외척이 정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했어도 말년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명나라가 망했다<sup>47)</sup>라고 하여 척신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나아가 그는 사대부의 진퇴가 척리들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동조하는 사대부들에게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sup>48)</sup> 출사를 포기하고 자정

46)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제42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8, p.92 참조.

47)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亡國之事非一 而外戚宦官爲禍最酷焉. 皇明祖訓不許母后臨朝 故外戚不敢用事. 冲辟當宁 任教刑臣壞弄天綱 王振, 劉瑾, 馮保, 魏忠賢四兇 終致亡國而後已.”

48) 洪直弼, 『梅山集』 권52, 「雜錄」, “賢士大夫朝夕左右 則庶無宦戚之禍 而每患

을 결심한다.

다음 글은 홍직필이 지은 「和陶淵明歸去來辭」의 서문이다.

나는 약관 시절 이래로 항상 은거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있어서 도성 안에 사는 것을 마치 여관에 일시 묶는 것처럼 여겼으나 형세에 막혀서 스스로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 … 그러나 저자거리에 몸을 두어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며 사는 것에 비교하면 새장 속에 갇혀 있던 새가 새장을 빠져나와 왜나무와 고개 위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다.<sup>49)</sup>

홍직필은 이미 그의 나이 20세에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파행과 斯道가 점점 쇠퇴해지고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나날이 성행하는 현실을 말세라고 인식하고, 守身安分을 위해 窮山에 숨어 살면서<sup>50)</sup>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기르겠다는 自靖의 의지를 다진다. 自靖은 『서경』의 「微子」편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 바르게 처신함을 의미한다.”<sup>51)</sup>

홍직필의 산거를 통한 자정의 의지를 드러낸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서울 남산 아래에다가 草幕을 짓다」이다.

樹屋南山下	남산 아래에다가 집을 지으니
南山几案中	남산이 책상 가운데 들어오네.
遊雲朝暮變	뜬구름은 아침저녁으로 변하고
積翠古今同	질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疎遠 輒被近君者所制命 操縱與奪 惟其所欲. 所謂士夫者 聽進退於其手 而恬不知恥. 嗚呼. 尙忍言哉.”

- 49) 洪直弼, 『梅山集』 권1, 「和陶淵明歸去來辭」, “余自勝冠 常懷藏密之願 視城闔如逆旅 而形格勢禁 罔克自遂. … 然比諸廁身闔闔 蒙世俗之塵埃 不翅脫樊籠而登槐嶺也.”
- 50) 趙秉憲, 『肅齋集』 권24, 「墓誌銘」, 「梅山洪先生墓誌銘」, “嘗曰 士欲守身安分 惟減影窮山而後可. 冬不處溫室 饑則餐松葉 危坐一榻以習其辛苦 雖生長京洛 而絕無外慕.”
- 51) 『書經』, 「微子」, “自靖 人自獻于先王.”

澤霧藏玄豹 안개에 젖은 검은 표범이 숨어 있고  
 防冬蟄老熊 겨울을 보내는 늙은 곰 칩거하였네.  
 我來非卜宅 내가 온 것은 집터를 정하려는 것 아니니  
 眞意自無窮 참다운 뜻 본래 다함이 없다오.<sup>52)</sup>

시의 전반부는 남산 아래에 지은 초막에서의 바라본 남산의 자연 풍경이다. 남산 아래에 사방이 트인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 책상을 놓고 앉아 있으면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산의 풍경이 눈앞에 들어온다.

시의 후반부는 작자가 남산의 초막에서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이다. 여기에서 ‘玄豹’는 재주를 감추고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작자 자신을 의미한다.<sup>53)</sup> 작가는 남산 아래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영원히 자연에 은거하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홍직필이 살았던 당대 斯道の 현실은 스승이 세상을 떠나 장사를 미처 지내지 않았는데도 과거시험을 보는 자가 있고, 스승이 죄를 받아 죽음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출사하는 등 유학적 가치는 이미 크게 퇴색한 상태였다.<sup>54)</sup> 그래서 그는 당대의 현실을 말세라고 판단하고 과거를 통한 출사를 포기하고 자연에 의거하며 후학을 양성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다음의 시는 그 자신이 스스로 경계함을 읊은 시이다.

52) 洪直弼, 『梅山集』 권1, 「樹屋南山下」.

53) 劉向, 『列女傳』 권2, 「陶答子妻」, “南山有玄豹 霧雨七日而不下食者 何也. 欲以澤其毛而成文章也. 故藏而遠害.”

54)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제42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8, p.66 참조.

天下英才亦何限 천하의 영재 또한 어찌 한정이 있으랴  
 皆從科擧誤平生 모두 과거 공부를 따라 평생을 그르치네.  
 方知內寇尤爲害 문 안의 도둑이 더욱 폐해가 됨을 아노니  
 栗老此言夙講明 울로의 이 말씀 일찍 강명하였네.<sup>55)</sup>

작자는 천하의 영재는 과거를 통해 出仕를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다양한 쓰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천하의 영재들이 모두 과거공부를 위해 평생의 삶을 망친다고 하여 과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객관적 사실로 드러내기 위해 先賢인 李珣의 “이단은 문밖의 적이고, 과거는 문안의 적이다.”<sup>56)</sup>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과거제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선비의 기상이 쇠퇴한 것은 과거제의 시행으로 인해 심화된 것이고, 삼대이후 삼대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은 바로 과거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과거가 아니면 입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전폐하려고 할 수는 없지만 順理安命하면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학문의 연마를 더 중요시하였다.<sup>57)</sup>

그러나 작자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아버지의 강권으로 세 차례 사마시에 응시하여 1801년 2월 그의 나이 26세에 사마시에 합격을 하고, 이어 회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을 한 이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sup>58)</sup>

55) 洪直弼, 『梅山集』 권1, 「自警吟 十一首」 其二.

56) 洪直弼, 『梅山集』 권1, 「自警吟」 夾註, “異端門外之寇 科擧門內之寇.”

57) 洪直弼, 『梅山集』 권17, 「答林學卿孝憲(丙子二月)」, “科擧之爲術也 惟眩嚮是事 安有守身而自沽者乎. 亦安有女先于男而自爲婚媾者乎. 縱使範我馳驅 終日不獲 已非十分道理 況滔滔是詭遇者流乎. 壞心之事非一 而應擧者爲甚. 故曰 伎倆愈精 心術愈壞 有伎倆者固已如許 而無伎倆者尤肆放肆. 壞之又壞 至於 牿其性亡其身. 哀哉.”

58) 洪直弼, 『梅山集』 권53, 「年譜」, “辛酉 純祖大王元年 先生二十六歲. 二月中 進士初試. 及屆會闈 遂廢擧業. 先生雜錄曰 余自童子時 斷念進取 三赴司馬試 亦黽勉承親命也. 至若大科 未嘗一赴也.”

나아가 그는 출사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그 자신도 부득이 하게 한 차례 출사하였다가 8일 만에 은퇴한 이후 평생 출사를 하지 않았다.

다음의 시는 홍직필이 그의 나이 35세인 1810년(순조10) 12월 돈령부 참봉에 유일로 천거되었을 때, 그 심정을 읊은 시이다.

心期早托許巢倫	마음이 허소의 무리에 의탁하여
天地中間自在身	천지 가운데에 자유로운 몸이었네.
三十五年成一笑	삼십오 년에 한번 웃음이 되니
簪紳班上姓名新	잡신의 반열 위에 성명이 새롭구나.

平生行止信蒼天	평생의 거취 하늘에 맡겼으니
聚散浮雲任自然	뜬구름 모이고 흩어지듯 자연에 맡겼노라.
惟有存身藏拙法	오직 몸을 보존하는 즐렬한 방법이 있으니
水邊林下了餘年	물가의 숲 아래에서 남은 생을 끝마치리라. <sup>59)</sup>

시의 첫 수는 자신이 20살 이후 「和歸去來辭」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평생 許由와 같이 속세의 명리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자유롭게 자연락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런데 35세에 갑자기 돈령부 참봉에 제수되자 자신이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시의 둘째 수는 작자가 자신의 평생 거취를 운명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도 자연의 이법에 맡겼으니 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安心立命을 위해 여생을 자연에 은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대궐에서는 여러 차례 벼슬을 제수하여 계속해서 출사를 요구한다.

59) 洪直弼, 『梅山集』 권1, 「辛未歲正月三日 爲觀清修金公城甫之葬 自密府發向京師 四日踰八條嶺 入達境 承敦府新命 馬上口占四絕」 其一, 二.

다음의 시는 그의 나이 39세인 1814년 2월에 世子翊衛司 洗馬에 제수되자 서울로 올라가 8일간 출사하였다가 사직하고 돌아오며 지은 시이다.

名利前頭萬里餘    명예와 이익의 앞 길 만여 리  
 夢魂猶未出林廬    꿈속에서 조차 산림의 초려를 벗어나지 않았네.  
 來去鶴書渾不管    鶴書가 오가는 것 전혀 관여치 않으니  
 野心長與白雲虛    초야의 마음 길이 백운과 함께 비어 있네.<sup>60)</sup>

작자는 출사가 名利를 보장해 주지만 자신은 평생 자연에 은거하며 살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어서 벼슬을 버리고 바로 낙향을 선택한다. 작자 자신은 산림의 유일로 자주 천거가 되겠지만 출사할 생각이 전혀 없고 초야에서 백운과 함께 자연락을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의 이러한 의지는 그의 다른 시에서도 “이미 뜬구름 향해 성명을 걸어 놓으니, 세상의 온갖 인연 모두 마음속에 잊었노라. 세상 사람들 희극으로 도리어 일이 많으니, 눈 속의 대나무와 소나무에 서로 의지하여 살리라.”<sup>61)</sup>라고 밝히고 있다.

홍직필은 스승인 朴胤源이 여러 차례 정조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를 만류하는 등,<sup>62)</sup> 출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자신도 35세에 산림의 유일로 천거되어 돈령부 참봉이 제수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후 39세에 세자세마로 8일간 출사를 했다가 사퇴한 이후 여러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sup>63)</sup>

60) 洪直弼, 『梅山集』 권2, 「解官識感 二首」 其一.

61) 洪直弼, 『梅山集』 권2, 「聞名登銓曹刺章戲題」, “已向浮雲掛姓名, 萬緣斯世摠忘情. 時人戲劇還多事, 雪竹寒松自我生.”

62)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狀」, “時近齋先生拜將作 朝野皆欲其出. 先生獨舉栗翁語牛溪事 勸其不出 近齋先生從之.”

63) 홍직필은 그의 연보에 의하면, 35세(1810) 敦寧府 參奉, 39세 世子翊衛司 洗馬, 47세(1822) 長興庫 奉事, 63세(1838) 提學, 64세(1839) 掌樂院 主簿, 65세(1840) 黃海道 都事, 軍資監 正, 66세(1841) 經筵官, 司憲府 持平, 司憲府 執

홍직필은 벼슬은 천근의 물에 젖은 옷을 입은 것이므로 이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물가에서 몸을 씻고 무성한 그늘 아래에서 머리를 말리며, 육경을 베게삼아 낮잠을 즐기고 멋있는 경치가 눈에 들오면 시를 짓고 물가에 나아가 술을 마시면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여겼다.<sup>64)</sup>

홍직필의 자연에 은거하여 자정하고자하는 의지는 다음 시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다음의 시는 그의 나이 49세에 이백의 「紫極宮詞」의 한 구절을 외우다가 감회가 일어서 지은 시이다.

結髮念善事	댕기 풀어 묶을 때부터 선한 일 생각하여
至道窺汗竹	지극한 도를 엿보려고 한죽을 가까이 하였노라.
采采靈芝草	영지의 풀을 캐고 캐지만
終朝不盈掬	아침 내내 한 줌도 차지 못하네.
南山白雲裏	남산의 흰 구름 속에서
悠悠處幽獨	한가로이 홀로 거처하니
餐霞卧蓬壑	노을 먹으며 깊은 골짜기에 누워서
永矢自寤宿	이곳에서 잠들고 일어날 것 맹세하노라. <sup>65)</sup>

시의 수련은 작가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꿈꿔온 삶의 의지이다. 작가는 관례를 한 뒤부터 평생 선한 마음을 지키려고 학문에 전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성현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경서를 끼고 살았다. 시의 함

---

義, 69세(1844) 工曹參議, 承政院 同副承旨, 70세(1845) 成均館 祭主, 76세(1851) 司憲府 大司憲, 77세(1852) 知敦寧府事, 刑曹判書 등을 제수 받았다.

64) 洪直弼, 『梅山集』 권17, 「答林學卿孝憲(丙子二月)」, “脫却千斤濕衣 好爲一葉輕身 沐耳清渠之濱 晞髮茂樹之陰 枕以六籍 漱以羣書 撫景則揮毫題詩 臨流則引觴獨酌 斯爲達士之所希 生人之極歡. 可能追徐禎卿雅言否. 人生適志 富貴何爲. 富貴猶然 况吏役乎.”

65) 洪直弼, 『梅山集』 권2, 「今年甲申 卽余四十九歲也 誦李白紫極宮詞四十九年非一往不可復一句 弼令人興感 遂步韻敘懷 仍呈沈仲賢 五首」 其一.

련은 작자 자신의 가난한 삶의 모습이다. 작자는 출사를 하지 않고 온종일 독서로 소일을 하니 생계가 매우 어려웠다.

시의 경련은 작자가 산림에 은거하여 사는 삶의 만족감의 독백이다. 작자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산 아래에서의 삶은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므로 이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미련은 작자의 앞으로 남은 삶의 자세이다. 작자는 이곳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남은 삶도 이곳에서 자연락을 즐기며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가 自靖하여 자연락을 추구한 것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시는 밀양으로 근친을 갔다가 말미를 받아 경주를 유람하여 갈 때 지은 시이다.

青春回大化	청춘이 대화에 돌아왔으나
白髮感殘生	백발 되어 남은 인생 서글프구나.
靜愛林居好	고요하니 산림에 은거함을 좋아하고
閒知世累輕	한가하니 세상의 얽매임이 가벼움을 알겠네.
詩書三古想	시경과 서경은 삼고의 생각이요
丘壑百年情	언덕과 골짜기는 백 년의 마음이라오.
樂意關幽鳥	즐거운 마음으로 숨어 사는 새와 놀고
臨風聳一聲	바람을 향해 한 소리를 듣노라. <sup>66)</sup>

이 시의 수련은 작자가 세월이 빠르게 흘러감을 속상해하고 있는 장면이다. 작가는 또 새로운 봄이 오니 한 살을 더 먹어서 42살이 되었으며, 머리가 이미 하얗게 센 것을 속상해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지금까지의 작가의 삶의 궤적이다. 작자는 산림에 은거하여 살면서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自靖을 추구한 것으로 自慰하고 하고 있다.

66) 洪直弼, 『梅山集』 권1, 「三月十六日呈觀由 發向東京 馬上口占 丁丑年」 其二.

시의 경련은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다. 작자는 자연에 은거하여 유가의 경전인 시경과 서경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평생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 미련은 自然一如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가 속세의 名利는 물론 機心조차 없으니 새들이 몰려와 함께 놀고 있다.

홍직필은 출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아버지의 강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을 한 이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 또한 39세에 세자세마로 8일간 출사를 했다가 사퇴한 이후 여러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

이는 작자가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이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파행과 斯道가 점점 쇠퇴해지고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나날이 성행하는 현실을 말세라고 인식하고 守身安分을 위해 산림에 은거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기르겠다는 自靖의 실천으로 드러났다.

## V. 結語

梅山 洪直弼은 스승인 朴胤源으로부터 ‘吾道有托’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학문이 뛰어났으나 과업을 포기하고 산림처사로 살면서 학문에 전념하며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낙론계 학자이다.

조선은 16세기 이후 산림에 은거하며 학덕을 쌓은 선비를 山林이라고 하여 유교 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존경하였다. 그러나 17세기에는 유림을 대표하였지만 영조 이후 실질적인 기능은 쇠퇴하고 오로지 유교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순조조의 세도정치 하에서는 安東金氏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洪直弼과 제자인 임헌회 등이 겨우 산림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유림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그의 사후에 “용맹하게 正道를 지키고 엄중하게 邪道를 물리쳤고, 곤궁하게 살면서도 근심하지 않았고, 영달하였어도 교만하지 않았다. 문학은 심오하고 의리는 정미하여 한 시대의 儒宗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가 평생 斯道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산림에 은거하여 自靖을 실천한 것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또한 ‘문학이 심오했다’는 평가는 그 자신이 학문과 후학의 양성의 여가에 3,555수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시와 산문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학문의 의지, 사도수호의 의지, 존명의리의 표백 등이 많이 드러난 시를 지었으며, 중후반기 이후에는 道友와의 교류, 가족 간의 정의, 산림처사로서의 삶의 만족, 늙음에 대한 한탄, 생활 주변의 소소한 사물 등 일상성을 드러낸 시를 주로 지었다. 그가 지은 시는 雅健冲淡하여 조탁을 일삼은 시가 아닌 순수한 성정에서 나온 시라고 평가를 받았다.<sup>67)</sup>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가 남긴 시와 명성에 비해 매우 소략하여 그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基肥로 삼아서, 실록의 평가처럼 그가 젊은 시절에 지은 시를 중심으로, 첫째, 關邪衛道の 의지, 둘째, 綱常義理의 추구, 셋째,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서 홍직필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일조하였다.

먼저, ‘關邪衛道の 의지’를 드러낸 시를 살펴보았다. 매산 홍직필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대내외적으로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勢道政治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三政의 紊亂 등으로 인한 민생의 파탄은 급기야 홍경래의 난 등 민란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국정이 매우 불안하였다. 또한 天主教의 전래로 인해 조선왕조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이 점점 그 기반이 흔들리고 사회의 혼란이 심화되어 갔다.

67)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狀」, “詩亦雅健冲淡 不屑雕琢 人皆謂不易及.”

홍직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의 사도의 현실을 말세로 보고, 사도의 부흥만이 말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명나라가 망한 것은 儒學이 분열되어 양명학과 같은 이단이 크게 발흥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조선이 말세가 된 것은 사도가 낙론과 호론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신들의 의론이 옳다고 다투는 사이 이단이 闖入한 것이 원인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사도의 부흥은 분열된 학파의 통합과 함께 선현들을 포양하고, 제자들을 독려하여 사도에 귀감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며, 현실적 이익을 쫓는 鄉原을 물리치고 풍속을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으로 ‘尊明排清義理의 추구’한 시를 살펴보았다. 홍직필이 살았던 18세기 전반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도 200년이 더 지난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노론 집권층을 제외하고 백성들은 명나라의 再造之恩에 대한 의식이 거의 퇴색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직필은 가문적 자부심과 학문적 배경으로 尊明의식이 남달랐다. 그의 존명의식은 서인들이 명나라가 망했어도 崇禎年號를 사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義理論을 계승한 것이다. 그의 존명의리는 排清意識으로 확대되어 청나라를 ‘개’라고 비하하는 등 적개심을 드러냈고, 청나라를 물리쳐서 문명화된 중화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자임 하였다.

마지막으로 ‘山居를 통한 自靖의 실천’한 시를 살펴보았다. 홍직필은 출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아버지의 강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을 한 이후 과거공부를 단념하였다. 이후 39세에 세자세마로 8일간 출사를 했다가 사퇴한 이후 여러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평생 출사하지 않았다.

이는 작자가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이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파행과 斯道가 점점 쇠퇴해지고 여기에 더하여 서구에서 전래된 천주교가 나날이 성행하는 현실을 말세라고 인식하고 守身安分을 위해 산림에 거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기르겠다는 自靖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홍직필의 중후반기 이후에 주로 지어진 일상의 시들의 분석하고, 그의 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여 19세기 한문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을 찾아보는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 金平默, 『重菴集』(한국문집총간 320집)  
李德懋, 『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 259집)  
任憲晦, 『鼓山集』(한국문집총간 속314집)  
趙秉憲, 『肅齋集』(한국문집총간 311집)  
洪直弼, 『梅山集』(한국문집총간 295~296집)  
『哲宗實錄』  
『書經』  
『漢書』
- 권오영, 「任憲晦와 그 學脈의 사상과 행동」, 『韓國學報』 제96집, 일지사, 1999.  
김문준, 「良齋 田愚의 抗日情神과 韓國 精神史의 意義」, 『한국철학논집』 제17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4.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제42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08.  
박학래, 「梅山 洪直弼의 性理說 연구」, 『국학연구』 제2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5.  
신영주, 「梅山 洪直弼의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 연구』 제30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안영상, 「매산 홍직필의 인물성동론과 명덕설」, 『인물성론』, 한길사, 1994.  
앨런 스윈지우드, 鄭惠善 譯, 『文學社會學』, 한길사, 198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 개혁』, 태학사, 2004.  
오영섭, 『화서학과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이대형, 「洪直弼의 영월 유람과 節義의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제8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李東宰, 「省齋 柳重敎의 詩文學 一考」, 『漢文漢字漢文教育』 제2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_\_\_\_\_, 「扶溪 田秉淳의 生涯와 詩文學 一考」, 『한문교육연구』 제32집, 한국한

- 문교육학회, 2009.
- 이상익, 「朝鮮後期 明德論爭과 그 意義」, 『동양철학연구』 제39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이은주, 「필사본 梅山集의 傳記 자료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정길연, 「매산 홍직필의 禮說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정순희, 「조선후기 도학자 시에 나타난 일상성의 몇 국면」,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최영성, 「敬石 任憲瓚의 학문과 사상」, 『한국민족문화』 제22집, 한국민족문화연구회, 2003.

## Abstract

### *A Study on Maesan Hong Jik-pil's Poetry / Lee Dong-jae\**

Maesan Hong Jik-pil was excellent in academics to be praised by his mentor, Park Yun won, for "We entrust our Do to you." He as a Nakron School scholar who abandoned the prepara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devoted himself to scholarship by living in scholar living in the forest, and produced numerous students. He wrote a vast number of poems reaching 3,555 poems at leisure from studies and cultivation of junior scholars, and his poems were evaluated as profound.

This study focusing on the poems that Hong Jik-pil wrote during his youth, explores first, the will of defeating the evil and defending the discipline, second, the pursuit of just as human beings, and third, his practicing living in retirement (自靖) through abandoning the government and living in the mountains, to help understand his literary world.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poems that revealed the will of 'the defeating the evil and defending the discipline.' Hong Jik-pil believed that the end of Joseon was caused by the fact that heresy such as Catholic came into the gap while Confucianism was divided into Nakron and Horon, fighting each other with their alleged arguments. He said that the revival of Confucianism, together with the consolidation of divided schools, should enhance ancient sages, encourage the scholastic disciples to cultivate talents who will become paragons, correct the customs, and establish the discipline.

Second, this study looked at the 'poems' pursued by just as human be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when Hong Jik-pil lived, with the exception of some Noron ruling classes, the people had almost no sense of Ming's grace that saved the dying. However, his fidelity of respecting Ming was in the background of family pride and academic background, so that he argued that the grace should not be forgotten even if Ming was ruined. His fidelity of respecting Ming has expanded to the will to defeat Qing, and the spirit of coping with national affairs, which praises a person who gave his life as the fidelity to one's principle among the historical figures of our country on the

---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extension line of protecting justice.

Third, this study explored the 'poems' of practicing a life in retirement through self discipline and living in the mountains. Hong Jik-pil took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s a compulsory solicitation of his father, but gave up his study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fter he failed. After his resignation at Sejasema for eight days at the age of 39, he had been appointed to several public posts, but he did not enter on an official career for the rest of his life. He perceived that the reality of the present day was the end of politics caused by Sedo politics and the decline of Confucianism, and the fact that Catholic, which was introduced from the West, became more and more popular every day. Living in the forest for keeping one's body and chastity (守身安分), he showed his willingness to living in retirement (自靖) to cultivate his academy and to cultivate junior scholars.

Future research is to analyze his poems of everyday life which were mainly written after the middle and later period of Hong Jik-pil, and review his poetry as a whole in order to identify his position in the 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Maesan, Hong Jik-pil, Nakron, defeating the evil and defending the discipline, fidelity of respecting Ming, living in retirement

투고일 : 5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4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